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제목 : 사랑하는 기쁨

성경: 마태복음 22장 37-40절

Tag:

37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38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39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40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22:37-40)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네 마음을 다하고, (heart)

목숨을 다하고, (soul)

뜻을 다하여(힘을 다하여;마가;strength)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마음을 다하고;정성을 다하여. **다하라**;all. 선택과 집중의 개념.
내가 지금 무엇을 할지를 정했다면(선택), 그 시간만큼은 그것에 집중하고 다른 것과 병행하지 말라.(사실 집중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다하라; 예화; 식혜 끓이기. 100℃를 넘기면 넘침. 한 눈 팔면 끝장.)

-네 하나님을 정성껏 사랑하라.

-간절함을 담아 사랑하라.

*목숨(soul)을 다하고;

-자신의 의지 자체. **100% 자기 자신의 의지로**. 사랑하라. 현혹된 사랑, 강요된 사랑, 마지못한 사랑, 억지 사랑...(유치원 아들에게. 꿀밤 몇 대 넣어준 다음에... 아빤 널 사랑해, 너도 아빠 사랑하지? 말해, 고개만 끄덕이지 말고...)

온전히 네 의지와 결단으로 하나님 사랑하기를 선택하고 변개치 말라. 후회함이 없는 사랑을 하라.

-처음에는 누군가 옆에서 권하더라도, 결국은 너의 의지와 결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라는 대로 할 뿐이라고 하지 말고, 스스로의 결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후회하지 말라.

-누군가 옆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권하거든, 그것을 나도 해야겠다. 나는 더 잘해야겠다고 다짐하며 사랑하라는 뜻.

(**예화;

존 비비어 목사님이 어느날 운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존, 내가 나를 보살피는 것 보다 너를 더 끄찍이 여기는 줄 너는 아니니?” 처음에는 마귀의 미혹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그 말씀은 정말 감당하기 힘든 말씀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나같이 하찮은 것을 당신 자신 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다니요? 그런 말씀에 증거가 될 성경 구절을 주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4. 그 후 성경구절이 생각났습니다,

벤전 2:24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누가 십자가에 매달렸느냐? 너냐, 나냐?” 그 말을 들을 때 비로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보다 자기를 더 끄찍이 생각하시고 돌보신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흐르기 시작 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롬 5:8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뜻을 다하여;(마가;힘을 다하여 strength)

-세상의 모든 일은 힘을 집중하지 아니하면 성사되지 않는다.

- 장인과 수련생의 차이는 힘을 집중할 줄 아는가 모르는가.
- 하루아침에 장인되지 않는다.
- 하루아침에 성도되지 않는다. 집중할 줄 알아야 한다. 예배에 힘을 모으고, 찬양에 힘을 모으고, 예물에 힘을 모으고, 매사에 대충하는 것 하나님 성품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 사랑은 계명인가, 열정인가? 의무인가?

*계명인 이유; 우리는 사랑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본능이기도 하고, 배움이기도 하다. 성장하고 발달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터득 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사람은 간혹 사랑보다 미움을 먼저 배우기도 하고, 질투를 먼저 배우기도 하며, 사랑받기에 익숙하게 된다면, 자기 사랑이 더 우선적인 사람이 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본능이 사람에게에는 있는데, 마귀는 그 본능을 더럽혀서 우상숭배와 기복신앙으로 변질시키려 한다. 심지어 교활한 속임수로 사람을 파탄에 이르게 한다.

-그래서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치려는 의도가 담겨있다.

*열정인 이유; 모든 사랑은 열정적이며, 모든 진실한 사랑은 꺼지지 않는 열정이다.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을 불어넣어 주신다.

그런데 열정은 **교제를 통해서 더 뜨거워진다**. 하나님 사랑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계속 확인하는 과정 속에서 열정은 계속 타오른다. 만약 교제가 끊기면 열정은 사그라든다.

-그러면 왜 열정이 사그라들었는지 살펴야 한다. 무엇이 문제인가? 엔진이 꺼진 이유는 무엇인가? 어디가 고장인가?

4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계2:4)

5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계2:5)

-분명히 열정이 식었다면, 그것은 회개할 문제라고 하신다.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뜻이다.

*의무인 이유;마땅한 것이기 때문. 사랑은 영원하다. 천국에서도 사랑만큼은 지속된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지, 이상하거나 희귀한 일이 아니다.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 또한 마땅한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은 하나님의 가장 핵심적인 속성이다.

-모든 사랑은 하나님이 그 원천이시다.

-그러나 우리는 사소한 이유로 사랑을 소홀히 한다.

어제 작고하신 이어령교수의 글이 있다.

(* *예화

이어령 선생님은 젊은 시절 가난했고 너무 바빴다고 합니다.

아빠로서 딸을 사랑할 수 있는 길은 돈을 벌어 바비인형이나 피아노를 사주고 좋은 사립학교에 다닐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어느 날 어린 딸 민아가 글쓰던 자신의 서재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빠에게 굿나잇을 하러 온 것입니다. 아마도 딸은 아빠가 안아주기를, 그리고 새 잠옷을 자랑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빠는 마침 떠오르는 영감을 글에 담아내기 위해 여력이 없었습니다.

글에 집중하느라 뒤돌아보지도 않은 채 손만 흔들며 “굿나잇 민아.”라고 했습니다. 예민한 아이였던 딸 민아는 아빠의 뒷모습만 보고 돌아서서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시간이 흘러 딸이 결혼도 하고 중년이 되었지만 사랑하는 딸은 암에 걸려 결국 아버지보다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어령 선생님이 죽은 딸이 생전에 했던 인터뷰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 때 수십년 전의 그 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딸이 얼마나 아빠의 사랑을 받고 싶었는지를 알았습니다.

딸은 인터뷰 기사에서 퇴근해 온 아빠의 팔에 매달렸을 때, ”아빠 밥 좀 먹자“하고 밀쳐낸 적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날 아빠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한번은 ”원고 마감이야, 애 좀 데려가!“ 라고 엄마에게 소리치는 아버지의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인터뷰에서 아빠가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달랐을 뿐이라며 아빠를 두둔해 줍니다.

그러나 그는 고백합니다. 자신의 사랑 자체가 부족했고 믿음이 부족했다고. 자기가 지금 일하지 않으면 ‘제대로 사랑하지 못할거야’ 하는 불안한 마음에 돌아볼 수 없었노라고.

그가 잘못을 깨닫고 늦었지만 이미 천국에 간 딸에게 편지를 쓰며 단 30초만 달라고 간구합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나에게 만일 30초의 그 시간이 주어진다면 딱 한번이라도 좋으니 낡은 비디오테이프를 되감듯이 그 때로 돌아가자.

나는 그 때처럼 글을 쓸 것이고 너는 엄마가 사준 레이스 달린 하얀 잠옷을 입거라. 그리고 아주 힘차게 서재 문을 열고 ”아빠 굿나잇“하고 외치는거다. 약속한다. 이번에는 머뭇거리며 서 있지 않아도 돼.

나는 글 쓰던 펜을 내려놓고, 읽다만 책장을 덮고, 두 팔을 활짝 편다.

굿나잇 민아야, 잘 자라 내 사랑하는 딸.

그런데 어찌하면 좋으니. 내가 눈을 떠도 너는 없으니

너와 함께 맞이할 아침이 없으니.

그러나 기도한다. 우편번호 없이 부치는 이 편지가 너에게 전해질 것을 믿는다.

갑자기 끊겼던 마지막 대화가 이어지면서 찬송가처럼 울려오는구나.
굿나잇 민아야, 잘 자라 민아야, 보고 싶다 내 딸아”
([딸에게 보내는 굿나잇 키스] 이어령)

-그래서 사랑의 의무감을 일깨우는 것도 중요하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항상 이 사랑의 의무감을 일깨워야 한다.

<찬양예배>

제목 : 성경:

Tag: